

미대륙이 “발견” 된 날에 생각해 보는 알래스카와 북한

이희백 (61, 시애틀)

1492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 한지 531년이 지났다. 이날을 Columbus Day라고 기념했었는데 이제는 “원주민의 날”이라 부르게 되었다.

만일 미대륙이 오늘에 비로소 ‘발견’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알래스카 사람들은 남쪽 48주를 lower 48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여긴다.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광대한 땅에 삶을 자랑한다. Lower 48에서 제일 크다는 텍사스의 거의 두 배 반의 면적에 살고 있고 인구는 텍사스의 40분지 1 밖에 안된다. 이것은 2020년 통계이고 내가 갔던 1972년에는 현재 인구의 반도 안 됐었다. 알래스카를 보면 1492년 당시의 lower 48 이어떠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후예들이 알래스카라고 가만히 돌리가 없다.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는 Gold Rush가 일어났었는데 1974년 알래스카에는 Black Gold Rush가 일어났다. 그러자 우리 집에서 160 마일 떨어진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보이던 알래스카산맥의 눈은 흐리게 되고 집에서 20 마일 떨어진 길에서 보이던 빙하는 몇 년 사이에 다 녹아 버려 사라졌다. 몇 년 후에 정유공장이 들어서자 공기는 더 탁해지고 모기가 사라졌다.

지금 지구상에서 옛 알래스카 같은 곳이 한군데 있다. 바로 우리의 DMZ다. 가끔 이곳에서 희귀한 새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들리고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자연공원으로 보존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DMZ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북한 전체를 공원으로 보전하면 어떨까.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한반도의 알래스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이북이 말하는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살자는 뜻이라면 북한도 옛날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총, 무쇠 없이 사는 세상, 수렵과 야생식물만을 채취해 먹고 사는 세상. 그러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농업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세상이다. 평양에 삼각형 호텔을 짓고 원산을 관광지로 만들고서는 ‘주체’를 지키기 힘들다. 더구나 원자폭탄과 미사일을 자기 혼자 힘으로만 만들 수 있나.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줘야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수렵과 자연 식물 채취로 살아가지 않는 한 ‘주체’ 사상은 지킬 수 없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자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자기 조상들의 생활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듯이 북한도 옛날 생활에 머무를 수 없다. 하다못해 금강산에도 오지 말아라 개성공단에서 돈 벌 필요도 없다니 어쩌자는 것인가. 영원히 깜깜한 밤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주체사상은 주책없는 사상이 되고 말았으니 주체사상을 버리고 공존 사상으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콜럼버스 날, 아니 원주민 날을 맞이해 생각해 본다. 2023년 10월 9일